

대학 다문화교육과 대학생들의 다문화 인식: 다문화이해 관련 교양 강좌 수강생들을 중심으로

염미경*

요약 이 글은 대학 다문화교육의 현황과 대학생들의 다문화 인식 및 태도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대학 다문화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인 분석 대상은 2011년 교양교과목으로 개설된 제주대학교 다문화이해 강좌 수강 학생들이다. 특히, 수강 학생들의 학기초와 학기말 인식 및 태도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다문화교육의 효과를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다문화 관련 강좌 수강을 통해 학생들의 다문화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고 교과목 수강 이후 다문화 관련 활동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학생들이 많아진 것으로 나타나, 다문화 관련 강좌 수강이 학생들의 다문화 관련 활동 참여 의사에 긍정적 효과를 미친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학기초와 학기말 다문화 관련 인식과 태도 변화를 살펴본 결과, 학기말의 인식과 태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다문화교육이 인종·민족·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학 교육과정에서 다양한 수준의 다문화 관련 강좌들이 개설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교과목 수강 동시에 따라 학생들의 다문화 관련 인식과 태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대학 내 혹은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문화 관련 활동 프로그램들을 마련해나가야 할 것이다.

주요어 다문화사회, 다문화교육, 다문화 이해 강좌, 다문화 인식, 제주대학교

1. 서론

최근 한국 사회에서 이주와 국가 간 경계를 초월한 다양하고 이질적인 문화권 간 접촉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인종·다문화적 특성을 수용하기 위해 다각도로 다문화 정책과 다문화 교육

* 제주대, 사회학, mgyeum@jejunu.ac.kr

을 시행해 왔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한국에서 1995년 27만 명에 불과하던 체류외국인 수는 2007년 단기체류 외국인을 포함해 1,000,254명으로 사상 처음 100만 명을 돌파했다. 2011년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계 주민¹은 1,265,006명으로 주민등록인구(50,515,666명)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0년 1,139,283명보다 1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외국계 주민을 유형별로 보면, 외국인노동자는 43.7%인 55만 2,946명, 결혼이민자(혼인귀화자 포함)는 16.7%인 21만 1,458명, 외국인주민자녀는 11.9%인 15만 1,154명²이다. 국적별로는 한국계 중국인을 포함한 중국 국적자가 696,861명으로 절반이상(55.1%)을 차지하고 이어 동남아시아(22%), 미국(5.2%), 남부아시아(4%), 일본(2.8%) 순이었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64.5%인 81만 6,235명이 집중되어 있으며 경기 30.1%(38,606명), 서울 29%, 경남 5.9%, 인천 5.5% 순으로 나타났다³(행정안전부, 2011). 이러한 인구학적 변화가 곧 다문화 사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이들의 유입을 통해 한국 사회가 다종족(multi-ethnic)·다민족(multi-national)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염미경, 2011).

이처럼 다문화·다인종 사회로의 급격한 변화와 이로 인한 문화적 갈등의 발생으로 인해 정부와 학계는 다양한 대책과 정책을 내놓고 있다. 우선 대표적인 정부의 대책으로는 교육인적자원부의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계획> 프로그램과 여성가족부의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사회 통합 지원 대책>, 법무부의 <여성결혼이민자 정착지원을 위한 가이드 북> 발간 등을 들 수 있

- 1 혼인이나 기타 이유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합법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 유학, 결혼 등의 이유로 90일 이상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종전에는 '이민자' 혹은 '이주민'이라고 하였으나 2008년 5월 이후부터 '외국계 주민' 혹은 '외국인 주민'으로 칭해 사용하고 있다. 정부는 외국인주민의 범주에 90일 이상 장기체류 외국인, 한국국적 취득자, 그 자녀, 한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으나 이혼 뒤 부모 중 한쪽이 외국인과 결혼한 가정의 자녀도 외국계 주민에 포함시켰다.
- 2 외국인주민 자녀는 결혼이민자와 한국국적 취득자의 자녀를 포함하는데, 전체 외국인주민의 11.9%가 외국인주민 자녀로, 2010년 대비 23.9% 증가한 것이다. 특히, 미취학아동(만 6세 이하)은 93,537명(61.9%), 초등학생(만 7세 이상 12세 이하)은 37,590명(24.9%)으로 초등학생 이하가 86.8%를 차지한다(행정안전부, 2011: 5).
- 3 제주도의 경우 2011년 6월 현재 외국인주민 수는 8,499명으로 제주도인구(571,255명) 대비 1.5%를 차지했고 이 가운데 외국인주민 자녀는 1,580명으로 나타났다(행정안전부, 2011)

다. 학계 역시 학문 전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는 다문화에 대한 국내·외의 이론적 논의를 비롯한 한국사회의 다문화 현황과 실태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문화교육에 관련된 연구들이다. 특히, 다문화교육은 다문화에 대한 편견극복과 타문화와 자문화의 소통과 공존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강진구, 2008: 54-55).

다문화교육은 한 국가 내에서 사회적, 문화적으로 다양한 인종, 성, 언어, 계층 등의 구성원들이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갖도록 교육과정의 변화를 추구함으로써 다양성을 인정하고 사회적 편견과 고정관념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이다. 다문화사회에서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그 사회의 이주민 정책의 방향성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그들에게 자리를 주고 나란히 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 안으로 받아들여 통합의 방향으로 갈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이에 대한 기본적 방향성과 총론을 바탕으로 통합교육과 분리교육의 문제, 이주자 자녀들의 교육에 대한 지원과 배려 문제,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과 내용 등 관련 제반 사항이 결정된다. 그리고 다문화교육은 다문화사상을 바탕으로 인간 개개인을 존중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며 주류에 있지 않았던 문화들을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것⁴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염미경, 2011; 지승현, 2008: 1).

현재 한국사회는 다인종·다문화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관련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다문화교육이 실제 교육대상자들의

4 이처럼 다양한 접근방식과 복합적 열린 교육을 지향하는 학교교육으로서 다문화교육에서 담아내야 하는 것으로 벅크스(Banks, 2008: 32)는 다음의 5가지를 들고 있다. 먼저 편견 줄이기로, 인종적·민족적 편견을 줄이는 방법론을 모색하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는 학생들이 지식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이해하게 하여 학생들에게 문화적 틀을 이해하게 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통합적 내용으로 교사가 다양한 문화적 콘텐츠를 사용하여 문화적 다양성을 통합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네 번째는 균등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는 아이들의 배움에 적합한 다양한 교수법을 사용하여 다양한 배경을 가진 아이들이 균등한 학업성취를 할 수 있도록 교수법을 개발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학교문화와 사회구조에서의 권력 기르기로 다양한 민족, 인종, 문화적 그룹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파워를 균등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균등하고 정의로운 학교문화를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다(염미경, 2011; 이민경, 2008: 80-91; Banks, 2008).

다문화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연구가 강진구(2008)와 박균열·박진환(2010)의 연구이다. 먼저 강진구는 대학 교양교과목으로 개설된 다문화교육이 대학생들의 다인종·다문화 인식에 끼친 영향을 분석하였고, 박균열·박진환(2010)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원으로 다문화이해 강좌가 개설된 국립 사범대학의 한 학기 사례를 대상으로 대학에서의 다문화이해 강좌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 글은 이들 연구가 지닌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에서 대학 다문화교육의 현황과 대학생들의 다문화 인식 및 태도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대학 다문화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글의 분석 대상은 지난 해 처음 교양교과목으로 개설된 <다문화이해와지역사회>이다⁵. 이 교과목을 개략적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 교과목의 개요 및 목표는 “첫째, 지구화시대의 세계화, 정보화, 인구화 등의 사회현실을 이해하고 이와 연관된 우리 지역의 다문화 현상과 문제점을 파악한다.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다문화시대라는 시대 현실과 연관된 우리 지역사회의 현실을 종합적으로 이해함으로써 다문화사회의 지역공동체 일원으로서 조화로운 삶을 영위해나갈 수 있는 기본적 토양을 마련한다. 둘째, 다문화시대에 성숙한 인격체가 지녀야 할 인간에 대한 이해와 사회봉사 정신을 배양하고, 글로벌 시대의 시민으로서 필요한 시민적 덕성 및 문화수용성과 같은 소양과 자기정체성을 함양한다.”이다. 다음으로 이 교과목의 주요 교육내용은 첫째, 다문화현상에 대한 이해와 다문화주의(다문화현상 이해, 다문화주의 이해와 우리사회의 현실), 둘째, 다문화사회의 소수집단의 인권(시민권, 소수집단의 인권과 권리), 셋째, 해외의 다문화 모델과 다문화정책, 넷째, 한국의 다문화정책의 전개과정과 과제(다문화정책 현황과 평가, 다문화정책의 방향), 마지막으로 다문화시대의 지역사회와 제주도의 상황과 과제(제주도의 다문화 현실과 지원체계, 지자체-NGO-이

5 이 교과목은 제주대학교의 교양교과목으로 2011년 첫 개설되었고, 개설 학과는 사범대학 사회교육과이며 본 연구자가 담당하고 있다.

표 1. 제주대학교 '다문화이해와지역사회' 교양교과목의 수업 내용

주	강의 주제	강의 내용	교육 방법
1	강의 소개와 오리엔테이션	• 교과목 취지와 운영배경, 교과운영 및 평가방법 안내; 문제제기: 다문화가족 자녀의 하루	강의
2	글로벌시대와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론적 학습	• 다문화주의란 무엇인가?: 현대사회와 다문화주의, 몇 가지 쟁점	강의
3	한국의 다문화사회 현황과 분석	• 한국사회의 소수집단의 인권과 권리 •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와 다문화사회현실: 현황과 특징 및 문제점	강의, 토론
4	해외의 다문화주의와 다문화정책의 전개과정	• 다문화주의 이론들과 다문화모델 유형 • 해외의 다문화주의와 다문화정책 사례 소개	강의, 토론
5	해외의 다민족·다문화사회 진전에서사회갈등 극복과정: 사례 연구	• 호주와 일본을 중심으로 한 다민족·다문화사회 진전에서 사회갈등 양상과 극복과정 고찰	강의, 토론
6	한국 다문화정책의 형성과 변화	• 다문화 관련 법령 현황과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정책	강의, 토론
7	중간 평가	중간고사	
8	지역의 다양한 이주자들의 현황 분석1(이주노동자와 그 가족)	• 외국인노동자가족 및 자녀 실태: 현황과 문제점	강의 및 이주노동자 관련 영화 시청 ('방가방가')
9	지역의 다양한 이주자들의 현황 분석2(결혼이주여성들과 그 가족)	•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가족 및 자녀 실태: 현황과 문제점	영화(결혼이주자들이 영화배우로 출연하는 다큐멘터리) 시청, 토론
10	지역의 다양한 이주자들의 현황 분석3(다문화가족의 자녀교육)	• 다문화가족 자녀교육의 문제: 현황과 문제점 • 제주도 지역사례 소개	강의
11	제주도 다문화가족의 현황분석	• 제주도 다문화 관련 정책의 추진과정과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활동 소개 • 제주도 다문화가족의 현실과 지원정책 전반에 대한 분석 • 제주도 NGO들의 다문화 지원활동	특강('제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제주 외국인평화공동체' 관계자) 및 질의응답
12	다문화사회와 교육	• 다문화교육에 대하여 • 지역 다문화교육 현황 및 향후 방향성 논의	강의, 토론

주	강의 주제	강의 내용	교육 방법
13 14	지역에 거주하는 다양한 이주자 및 다문화 관련 정책이나 사업을 해오고 있는 기관 및 NGO들에 대한 현장탐방 조사 과제 발표 및 상호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현장 탐방 보고서 발표 • 토론 및 종합 	발표(지역탐방조사 보고서 발표), 토론
15	종합 평가	기말고사	

주민의 관계, 지자체와 NGO의 다문화활동 등) 이다. 이 교과목의 주별 수업 내용을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글은 <다문화이해와 지역사회>라는 교양교과목의 2011년 1학기과 2학기 수강 학생들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대상과 방법

구체적인 분석을 위한 자료수집에는 문헌조사방법과 2011년 1학기과 2학기 <다문화이해와 지역사회> 교과목 수강 학생들에 대한 설문조사방법이 사용되었다. 다문화 관련 교양 수업 수강이 다문화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과 태도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학기초와 학기말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학기말의 경우 당초 수업에서 계획하였던 다문화주의 담론, 외국 사례, 각종 다문화정책, 지역의 다문화정책과 사업 등 당초 계획했던 다문화이해 커리큘럼 학습과 다문화관련사업 수행하고 있는 지역의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들에 대한 탐방조사 이후 실시하였다. 이렇게 하여 수집된 1학기과 2학기 초 자료와 1학기과 2학기말 자료를 합쳐 분석하였다. 조사내용은 박균열·박진환(2010)이 사용한 질문지⁶ 중 인종·민족·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과 태

6 원래의 질문지는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정책과 주관으로 서울교육대학교 다문화교육연구소에 위탁하여 제작된 질문지임을 밝혀둔다.

도 관련 문항에 다문화 관련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수강 동기, 희망 교육내용, 자신의 수강태도, 수강 전 다문화 관련 교육이나 정보 경험, 다문화 관련 활동 참여경험과 향후 참여 의사 등)과 배경 변인(성별, 학년, 소속전공) 문항을 포함하여 구성하였다⁷.

인종, 민족,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과 태도 문항은 표 2와 같으며, 모두 5점 척도(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를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특성을 성별, 학년별, 전공계열별로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조사대상자는 학기초에는 113명이었고 학기말에는 107명이었는데, 조사대상자에서 학기초와 학기말이 차이를 보이는 것은 휴학이나 결석으로 인한

표 2. 인종, 민족,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

구분	문항
인종, 민족,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	(1) 현재 한국은 다양한 인종과 민족이 살고 있는 다문화사회라고 생각한다. (2) 한국이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는 현상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3) 나는 다른 인종, 민족의 생활방식, 언어, 풍습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4) 나는 다문화가정 사람들도 한국 사회의 일원이라고 생각한다. (5) 나와 인종이나 민족이 다른 사람이 내 가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6) 시민단체나 정부에서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7) 다문화가정 사람들은 자신의 고유문화를 고집하지 말고 한국사회에 동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종, 민족, 다문화가정에 대한 태도	(1) 나는 다른 인종이나 민족의 사람들과 있어도 불편하거나 어색하지 않다. (2) 나는 다른 인종, 민족의 차이를 인정하고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3) 나는 인종이나 민족이 다른 사람과 옆집에 살거나 그들의 이웃이 되는 것이 싫지 않다. (4) 나는 결혼이주여성이나 이주노동자들이 부당한 대우나 차별을 받는다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실천에 동참할 것이다. (5) 다문화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 (6) 대학 입시나 취업에서 다문화가정 사람들을 배려하여 특혜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7) 다문화가정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지원은 필요하다.

7 질문지의 신뢰도는 교과목에 대한 자신의 수강태도는 4문항으로 Cronbach's Alpha=.781, 교과목에서 희망하는 교육내용은 14개 문항으로 Cronbach's Alpha=.639로 질문지의 신뢰도는 매우 높

표 3. 조사 대상자의 특성

	성별		학년		전공계열		전체
	남자	여자	1	2,3,4	인문계	자연계	
학기초	51(45.1%)	62(54.9%)	94(83.2%)	19(16.8%)	45(39.8%)	68(60.2%)	113(100%)
학기말	53(49.5%)	54(50.5%)	89(83.2%)	18(16.8%)	50(46.7%)	56(52.3%)	107(100%)

것이다. 성별로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인문계열보다 자연계열 소속 학생이 많았다.

수집된 자료의 처리는 각 문항별로 확인과정을 거쳐 학기초와 학기말의 문항이 같은 경우 학기초의 자료를 기준으로 하였고 인식과 태도상의 변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t검증을 실시했다. 각 문항별 빈도분석을 기본으로 하고, 성별, 학년별, 소속계열별, 수강동기와 인종·민족·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 및 태도 관련 문항들 간 교차분석을 하였다. 사용한 통계 프로그램은 SPSS version 12이다.

3. 대학 다문화교육의 현황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에 대한 관심과 다문화교육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1990년대 초 이주노동자가 증가하면서 인권보장이 주요 쟁점으로 등장하면서 서부터이다. 1990년대 후반 결혼이민자가 급증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2세 교육에 사회 관심이 집중되었고, 이를 교육받을 권리에 근거한 다문화교육정책의 방향이 제시되게 되었다(전세경, 2011: 216). 한국 사회 다문화교육은 이주해온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여러 가지 사회적응 문제를 해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종·민족·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은 7문항으로 Cronbach's Alpha=.278로 비교적 낮은 신뢰도를 나타낸 반면 인종·민족·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Cronbach's Alpha=.711로 상대적으로 높은 신뢰도를 나타냈다. 이는 박균열·박진환의 연구(2010)와 비슷한 신뢰도 수준이다.

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부 주도로 시작되었고(김희정, 2007)⁸, 한국어교육,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가족교육, 직업교육 등이 주된 사업이었다.

최근 들어 다문화가정, 이주노동자 등 특정 정책집단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를 교육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일반 학생과 학부모, 교사 및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다문화이해 교육과 다문화적 시민성교육 혹은 다문화 소양교육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특히, 다문화가정 학생 수가 증가⁹하면서 학교 현장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겪는 한국사회와 학교생활의 적응을 위한 다양한 교육적 지원이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교사의 전문적 역할이 강조되게 된다.

이를 배경으로 하여 교육과학기술부는 다문화가정 학생의 교육격차 해소 및 통합교육, 일반 학생의 다문화 감수성 및 이해 제고 등을 위해 2008년 ‘다문화가정 학생교육지원방안(2009~2012)’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학교 다문화교육을 수행할 교사의 역할과 그 준비에 대해서도 주목하였다. 다문화교육에 있어서 교사의 전문적 역할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요구에 따라 예비교사들을 위한 교사양성과정에 ‘다문화교육에 대한 이해’ 교육이 포함되었고¹⁰,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대학의 교양 교육과정에 다문화 관련 강좌들이 포함되어 개설되게 된다. 제주대학교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원 사업으로 다문화이해 강좌가 2010년부터 교직과목으로서 교육대학에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고,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원사업과 별도로 2011년 교양교육과정을 재

8 정부 주도의 다문화교육 일반에 대해서는 김희정(2007)과 서범석(2010) 등의 연구를 참조바람.

9 2010년 4월 현재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결혼이민자가정 학생이 30,040명이고 외국인노동자가정 학생수는 1,748명인데(교육과학기술부, 2010), 이 수치는 학교에 다니고 있는 재학생 수만 집계된 것으로 초등학교 취학 전 연령의 자녀수를 고려하면 그 수는 훨씬 넘을 것으로 본다. 현재로서는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월등하게 많으나 앞으로 이들이 상급학교로 진학하면서, 중등학교에서도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10 교육과학기술부는 2007년부터 개정교육과정 총론에서 다문화교육을 범교과 주제의 하나로 선정하였고 2009년에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위해 방과 후 한국어교육, 멘토링 사업을 실시하였고, 교사들을 위한 지침서도 발간하였다. 또한 2009년부터 2개년에 걸쳐 전국 초등교원양성기관에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사교육 사업으로서 다문화교육 강좌 개설을 지원하여 초등예비교사의 다문화 이해를 독려하고 다문화교육 멘토링 사업, 다문화 동아리사업 등을 지원하도록 하였다(전세경, 2011: 214).

편하면서 학과의 개설 요구에 부응해 교양 교육과정에 포함되게 된다.

이처럼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다문화교육은 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교
사양성기관 중심의 강좌와 교양교육과정으로 개설된 강좌로 구분된다. 교
사양성기관을 중심으로 한 다문화교육 강좌는 2008년부터 교육과학기술부
를 중심으로 다문화 관련 교육과정에 대한 정책적 지원 사업으로 '다문화가
정 학생 및 학부모의 교육역량, 사회의 다문화 이해 및 수용성 증진'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다문화교육기반 구축의 하나로 실시한 것이다. 실제
2009년부터 국립교육대학교를 중심으로 '다문화교육 강좌' 개설 지원 사업
이 시행되었으며 2010년부터 더욱 확대되어 국립 교·사대 강좌 개설 지원
및 사립 교원 양성대학의 '다문화교육 강좌' 개설을 유도하면서 동시에 현직
교사의 연수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10)¹¹. 이처
럼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문화이해교육으로는 교육대학에서 초등예
비교사의 다문화 관련 인식과 태도의 확립을 도모하기 위한 다문화교육 강
좌가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 이외에, 대학생들과 다문화가정 학생들과
의 멘토링 연계 활동이 장려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육과학기술부가 예비교사 및 현직교사를 위
한 다문화교육 관련 강좌 개설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현장의 다문화교육
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교직이수를 목적으로 하는 대학에서의 다문화교
육 관련 강좌는 비교적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편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은 80%를 넘어서서 이제 대학교육은 특성화
된 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한 기관이기보다 일반인들의 교양교육기관으로의
성격이 커졌다. 따라서 사회의 현상을 반영하고 자신이 살아갈 삶에 도움
을 받을 수 있는 내용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지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
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교육과정이 교양 교육과정이다. 이와 관련해 주
목할 만한 연구로는 사회에서 대학에 요구하는 교육의 가치가 변화하면서
교육과정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보다 구조적인 변화를 돕기 위한 교수방법

11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원한 '다문화교육 강좌' 개설에는 국립 초등교육대학 10개 대학,
국립 사범대학 9개 대학, 한국교원대학(초등, 중등)이 참여하였다.

의 다양화를 제기하는 김성우·최종덕(2009)과 임재윤(2001) 등의 연구와 이은화(2007), 부향숙(2009)의 연구가 있다. 이은화(2007)는 종합대학 교양교육이 소수정예주의 교육, 엘리트교육으로 특성화되었다가 다수의 대중을 위한 실용적 교육의 기회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대학교육의 방향이 대중적이고 실용적이며 직업적인 성격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고, 부향숙(2009)은 조사된 대학 교육과정의 내용구성 관련 연구에 근거해 '다문화 관련 과목'의 비중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학의 교양교육과정은 대학의 규모나 철학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최근 다문화 관련 교육의 경우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제도적인 차원에서 적응하는 형태로 개발되어 학습자들의 요구도 보다는 국가의 요구도에 의해 개발된 경향이 크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과 같은 공교육기관의 교사를 양성하는 대학에서 다문화 관련 강좌는 자율적이라기보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원을 받아서 활발하게 개설, 운영되고 있다¹². 이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나 정부 부처 주도로 인하여 대학에서 교육과정의 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갖지 못하고 다문화라는 학문적 성격이 방대하다 보니 지역적 특성이 부족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이 글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원을 받은 교과목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개설된 대학의 교양교과목으로서 다문화 관련 강좌에 대한 분석이며, 구체적인 사례는 2011년 개설된 제주대학교의 <다문화이해와 지역사회> 강좌 수강 학생들이다.

교양교과목으로서 다문화 관련 강좌에 대한 분석으로 주목할 만한 것이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교양수업을 듣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문화에 대한 인지도, 다문화교육의 필요성, 다문화에 대한 이해 정도 등을 조사

12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9년 초,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초등교원 양성대학에 공모, 평가를 통한 다문화 교육광좌를 응모하였으며 현재까지 교육대학은 2년간, 연속사업으로 지원 중이며 2010년부터는 국립대 사범대학으로 확대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각 대학에서 추진 기획단에 사업을 위탁하여 성과 평가 및 분석 실시 및 개선안에 대한 안내 역할을 하고 있으며 2010년 현재 한국연구재단으로 업무가 이관된 상태이다(어성연 외, 2011: 273).

한 강진구(2008)의 연구¹³와 교양교육 수요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내용의 개발을 위해 학습자들의 다문화 관련 교육 요구도의 특징과 차이점을 종합대학교와 교육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 분석한 어성연 외(2011)의 연구이다. 이 글에서는 이들 연구의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에서 교양 교과목으로 개설된 다문화 관련 강좌를 수강하는 학생들의 다문화 관련 인식 및 태도에서의 특징과 다문화교육의 효과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앞으로 기본적인 교양 교과목으로서 다문화 관련 교육과정에 대한 개발이 시급하다고 볼 때 이 글은 사례 연구로서 이에 대한 일정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이다.

4. 대학생의 다문화 관련 인식 및 태도

1) 수강 동기·다문화 관련 정보 경험 및 활동 참여 의사·희망교육내용

교과목 수강 동기를 살펴보면 학기초에는 재미있을 것 같아서 수강했다는 의견이 45.1%로 가장 많았고, 앞으로 사회활동 시 도움이 될 것 같아서가 32.7%, 평소 다문화에 관심이 많아서가 32.7%로 나타났다. 학기말에는 각각 38.3%, 30.8%, 23.4%로 순위는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평소 다문화에 관심이 많아서가 학기초보다 훨씬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표 4). 이는 교과목 수강을 통해 학생들 스스로가 다문화에 관심이 많아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5에 의하면, 교과목 수강 이전 다문화 관련 교육이나 정보 획득 경험이나 다문화 관련 활동 경험은 1학기과 2학기 모두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

13 강진구(2008)는 다문화 관련 교양수업 수강이 대학생들의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살펴 보기 위해 다문화 강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하였고, 아울러 이들과 다문화이해 강좌를 수강하지 않은 일반 학생들 간의 비교 분석도 실시하였다. 조사내용은 다문화에 대한 인지도 여부, 다문화교육의 필요성, 다문화에 대한 이해 정도, 다문화교육과 다문화 이해의 상관성 등이다.

표 4. 교과목 수강 동기

	재미있을 것 같아서	평소 다문화에 관심이 많아서	앞으로 사회활동 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기타	전체
학기초	51(45.1%)	19(16.8%)	37(32.7%)	6(5.3%)	113(100%)
학기말	41(38.3%)	25(23.4%)	33(30.8%)	7(6.5%)	107(100%)

표 5. 다문화 관련 정보 획득 및 활동과 향후 다문화 관련 활동 참여 의사

	교과목 수강 이전 다문화 관련 교육이나 정보획득 경험		교과목 수강 이전 다문화 관련 활동(동아리, 멘토링, 자원봉사) 경험		교과목 수강 이후 다문화 관련활동(동아리, 멘토링, 자원봉사) 참여의사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1학기	3(5.7%)	50(94.3%)	3(5.7%)	50(94.3%)	38(71.7%)	14(26.4%)
2학기	8(13.3%)	51(85.0%)	4(6.7%)	54(90.0%)	41(68.3%)	19(31.7%)

고, 1학기에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는데, 이는 1학기와 2학기 모두 수강생의 대부분이 대학 1학년 학생들이 많았는데 한 학기를 거치면서 다문화 관련 정보나 활동을 접할 기회가 많아졌기 때문에 1학기보다 2학기 수강 학생들이 미미하지만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문화 관련 활동에 참여의사를 긍정적으로 나타낸 경우가 1학기에 전체 대상자의 71.7%, 2학기에 68.3%로 나타나 교과목 수강이 수강 학생들의 다문화 관련 활동 참여 의사에 긍정적 효과를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학기초에 교과목 수강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문화 관련 희망 교육 내용을 살펴본 결과, 다문화가정의 특성 분야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북한이탈주민 관련 분야, 다문화 관련 현지 탐방, 다문화교육에 관한 최근 국제적 동향 순으로 나타났다¹⁴(표 6).

14 사범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박균열·박진환(2010)의 연구결과에서는 북한 이탈주민 관련 분야에 대한 교육 내용을 가장 많이 희망하였으며 다음으로 다문화 관련 상담분야, 다문화 관련 현장 답사, 다문화교육의 내용과 방법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가 어디에서 연유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심층적인 조사가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표 6. 학기초 다문화 관련 희망하는 교육내용

	응답빈도(%)			평균인식	
	매우 희망함(3점)	약간 희망함(2점)	희망하지 않음(1점)	평균	SD
1. 다문화 이해를 위한 기초이론	31(27.4%)	65(57.5%)	12(10.6%)	2.17	.60
2. 다문화 사회로서의 한국 사회 이해	34(30.1%)	66(58.4%)	9(8.0%)	2.22	.58
3. 다문화 교육의 내용과 방법	25(22.1%)	70(61.9%)	14(12.4%)	2.10	.59
4. 다문화 교육에 관한 최근 국제적 동향	44(38.9%)	57(50.4%)	10(8.8%)	2.30	.62
5. 다문화 가정의 특성	65(57.5%)	43(38.1%)	4(3.5%)	2.54	.56
6. 결혼 이민자 관련 분야	38(33.6%)	58(51.3%)	14(12.4%)	2.21	.65
7. 이주 노동자 관련 분야	30(26.5%)	62(54.9%)	18(15.9%)	2.10	.65
8. 북한이탈주민 관련 분야	49(43.4%)	45(39.8%)	16(14.2%)	2.30	.71
9. 다문화 관련 한국어 교육 분야	38(33.6%)	56(49.6%)	16(14.2%)	2.20	.67
10. 다문화 관련 이중언어 교육분야	27(23.9%)	53(46.9%)	30(26.5%)	1.97	.72
11. 다문화 관련 상담 분야	30(26.5%)	62(54.9%)	20(17.7%)	2.08	.66
12. 다문화 관련 전문가 특강	36(31.9%)	49(43.4%)	26(23.0%)	2.09	.75
13. 다문화 관련 현지 탐방	46(40.7%)	42(37.25)	22(19.5%)	2.23	.77
14. 기타	1(0.9%)	1(0.9%)		2.50	.70

학기말 교과목 수강 학생들의 교과목에 대한 본인의 수강 태도를 성별, 학년, 전공별로 살펴본 결과, 평균 3점대로 보통 정도의 수준으로 나타났다(표 7). 성별과 학년별로 볼 때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1학년보다 2,3,4학년이 수강태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것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로 조사되었다. 반면 전공별 차이를 보면 인문계열 학생들보다 자연계열 학생들이 수강태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것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다($p>.05$).

2) 인종·민족·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의 차이

인종·민족·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은 학기초 평균 3.55였으나 학기말에는 평균 3.65로 다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p<.001$), 모든 문항에서 p

표 7. 교과목에 대한 자신의 수강 태도

	성별					학년					전공계열				
	남자		여자		t(p)	1		2,3,4		t(p)	인문계		자연계		F(p)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나는 본 강좌를 열의를 가지고 성실히 수강하였다.	3.26	.88	3.14	.85	-18.213 (.000)	3.08	.80	3.77	.94	-25.249 (.000)	3.14	.94	3.28	.77	.781 (.540)
나는 다른 교과보다 더욱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수강하였다.	3.13	.85	2.92	.84	-16.960 (.000)	2.87	.76	3.77	.87	-24.587 (.000)	2.96	.90	3.10	.80	.583 (.676)
나는 수업시간 외에도 다문화 이해 활동 등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였다.	2.75	1.03	2.85	.87	-12.277 (.000)	2.73	.84	3.16	1.33	-17.252 (.000)	2.74	.98	2.83	.92	.251 (.908)
나는 본 강좌를 통해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도와 감수성이 높아졌다.	3.79	.86	3.74	.87	-23.815 (.000)	3.67	.86	4.22	.73	-31.386 (.000)	3.78	.86	3.75	.87	.059 (.993)

값이 .001 이하로 유의한 수준이다(표 8). 이를 통해 다문화교육이 인종·민족·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 변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향상 정도가 높은 항목은 “한국이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는 현상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로 학기초 3.69에서 학기말 4.21로 교과목 수강 이후 한국이 다문화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현상을 바람직한 일로 바라보고 있는 정도가 높아졌다는 점이다.

이를 성별, 학년별, 전공계열별 차이를 살펴보았는데, 성별로 볼 때 바람직한 일로 바라보고 있는 비율이 여성(44%)이 남성(31.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볼 때 1학년보다 2,3,4학년이 미미한 수준이나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수강동기별로 볼 때 평소 다문화에 관심이 있어서 수강한 학생(68.4%)이 재미있을 것 같아서 수강한 학생(60.8%)과 앞으로 사회활

표 8. 인종, 민족,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

문항번호	학기초		학기말	
	평균	SD	평균	SD
1	3.82	.90	3.78	.61
2	3.69	.94	4.21	3.84
3	2.46	.75	2.83	.73
4	3.90	.74	3.92	.57
5	3.86	.90	3.82	.76
6	4.15	.77	4.15	.76
7	2.94	1.14	2.87	1.03

* 모든 문항에서 p값은 .001 이하임.

동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수강한 학생(59.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소속 전공별로 차이를 살펴보면, 인문계열 학생(57.8%)보다 자연계열 학생(64.7%)이 한국이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는 현상은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인문계열 학생들이 자연계열 학생들보다 더 높게 나타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조사 결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전공계열별 차이가 의미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보다 심도 깊은 분석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나는 다른 인종, 민족의 생활방식, 언어, 풍습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항목의 평균도 학기초(2.46)보다 학기말(2.83)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이하라고 인식하고 있는 비율이 대다수(93.8%)로 나타났고 이 가운데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의 비율만 61.2%로 과반수가 훨씬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볼 때 여학생과 남학생 모두 90% 이상이 다른 인종, 민족의 생활방식, 언어, 풍습 등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2,3,4학년이 1학년보다, 인문계열이 자연계열보다 그 정도가 미미한 차이로 높았다. 그러나 수강동기별로 살펴보았더니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에서 평소 다문화에 관

심이 있어서 수강한 학생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앞으로 사회활동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수강한 학생(45.9%), 재미있을 것 같아서(62.7%)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교과목 수강 동기가 다문화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대학에서 다른 인종, 민족의 생활방식, 언어, 풍습 등을 접할 수 있는 교과목들이 설강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 각 대학에서는 다문화교육과 함께 다른 인종, 민족의 생활방식, 언어, 풍습 등의 이해 관련 강좌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3) 인종·민족·다문화가정에 대한 태도의 차이

인종·민족·다문화가정에 대한 태도는 학기초 평균 3.60이었으며 학기말에는 평균 3.75로 향상되었으며 이것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내용에서도 “나는 다른 인종이나 민족의 사람들과 있어도 불편하거나 어색하지 않다.”를 제외하고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표 9).

개별 내용들의 응답에서 전체적으로 성별 차이가 나타났는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훨씬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는 다른 인종이나 민족의 사람들과 있어도 불편하거나 어색하지 않다.’, ‘나는 결혼이주여성이나 이주노동자들이 부당한 대우나 차별을 받는다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실천에 동참할 것이다.’, ‘대학 입시나 취업에서 다문화가정 사람들을 배려하여 특혜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문화가정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지원은 필요하다.’ 등 7개 문항 중 4개 문항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학년별로 보면 전체적으로 2,3,4학년 학생이 1학년 학생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고학년이 될수록 대학생활하면서 관심이나 지식 혹은 경험의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나는 결혼이주여성이나 이주노동자들이 부당한 대우나 차별을 받는다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실천에 동참할 것이다.’와 ‘대학 입시나 취업에서 다문화가정 사람들을 배려하여 특혜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문항을 제외하고 인문계

표 9. 인종, 민족, 다문화 가정에 대한 태도

문항번호	학기초		학기말	
	평균	SD	평균	SD
1	3.18	.87	3.12	.98
2	3.94	.71	4.03	.65
3	3.99	.82	4.04	.71
4	3.80	.78	3.85	.72
5	3.07	.83	3.82	.86
6	3.15	.90	3.22	.88
7	4.08	.73	4.14	.68

* 모든 문항에서 p값은 .001 이하임.

열 학생들이 자연계열 학생들보다 미미한 수준이지만 좀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나타냈다.

수강동기별로 볼 때 ‘나는 결혼이주여성이나 이주노동자들이 부당한 대우나 차별을 받는다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실천에 동참할 것이다.’, ‘다문화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 ‘대학입시나 취업에서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배려하여 특혜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를 제외한 문항들에서 평소 다문화에 관심이 있어서 수강한 학생들이 훨씬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런데 특기할 만한 사항은 이들 문항에서 앞으로 사회활동을 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수강한 학생이 가장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점이다. 평소 다문화에 관심이 있어서 혹은 앞으로 사회활동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등의 동기로 수강한 학생들이 인종, 민족, 다문화가정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이들 태도 문항들 중 학기초와 학기말을 비교할 때 그 향상 정도가 가장 높은 내용은 “다문화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응답으로 학기초 3.07에서 학기말 3.82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종, 민족, 다문화가정에 대한 태도 문항들에 대한 분석 결과, 대체로 다문화교육이 학생들의 인종·민족·다문화가정에 대한 태

도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5. 결론

최근 대학들에서 다문화 관련 강좌 개설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은 바 크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육과학기술부의 노력으로 2009년부터 전국 국립 교육대학에서 다문화 관련 강좌 개설 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전국 국립 사범대학으로 사업 범위가 확대되었다.

이처럼 다문화 관련 교육과정에 대하여 교직과목을 다루고 있는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에서의 운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바람직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라는 정부기관의 주도로 인하여 대학에서 교육과정의 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갖지 못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고 다문화 분야의 학문적 성격이 방대하다 보니 지역적 특성, 강좌의 효과성, 학습자의 요구도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가 부족한 편이다(박균열·박진환, 2010; 어성연 외, 2011: 273). 정책적인 접근에 의한 교육과정 개발 자체도 중요하지만, 다문화 교육의 가치를 포함하고 교양교육 수혜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내용의 개발이 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 학습자들의 다문화 관련 교육 요구도에 대한 심도 깊은 고찰이 필요하다(어성연 외, 2011: 270).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2011년 개설된 제주대학교 다문화 관련 교양 교과목 수강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문화 관련 강좌 수강동기, 다문화 관련 정보 경험 및 활동 참여의사 그리고 희망교육 내용 등을 비롯해 다문화 관련 인식 및 태도를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수강 학생들의 학기초와 학기말 인식 및 태도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다문화교육의 효과를 개략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다문화 관련 강좌 수강을 통해 학생들의 다문화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고 교과목 수강 이후 다문화 관련 활동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학생들이 많아진 것으로 나타나, 다문화 관련 강좌 수강이 학생들의 다문

화 관련 활동 참여 의사에 긍정적 효과를 미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교과목 수강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문화 관련 희망 교육 내용을 살펴본 결과, 다문화가정의 특성 분야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북한이탈주민 관련 분야, 다문화 관련 현지 탐방, 다문화교육에 관한 최근 국제적 동향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문화 관련 강좌에서 이러한 분야가 교육내용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학기초와 학기말 다문화 관련 인식과 태도 변화를 살펴본 결과, 학기말의 인식과 태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다문화 교육이 인종·민족·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학에서의 다문화 관련 강좌가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글의 분석 결과 교과목 수강 동기에 따라 학생들의 다문화 관련 인식과 태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대학 내 혹은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문화 관련 활동 프로그램들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대학 다문화 관련 강좌의 교육내용 구성에서 중요한 것은 지역적 특성의 반영이다. 한국 사회가 다문화사회화하면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세계성과 지역성 간의 새로운 접합 경향이 나타나는 곳이 지역사회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는 지역사회 기반의 조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다문화 관련 강좌 구성에서는 지역사회의 특성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제주도 지역사회를 예로 들어보면, 제주도 원주민들의 기원에 관한 ‘삼성혈 신화’를 살펴보면, 제주도 원주민들은 단군의 자손이 아니라 땅 속에서 출현한 고·양·부 3성 시조들의 자손인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주민들조차 대한민국은 단일민족국가라고 아무 의심 없이 믿어왔다. 또한 제주도의 가족관계는 한국 사회의 일반 가족관계의 전형적인 특징과는 일정한 차이가 있고 제주도 방언의 경우 표준어와는 거리가 있다¹⁵. 따라서 결혼이민자들의 생활이나 적응에 대해 교육내용에서 다룰 때 이같은

15 대체로 제주도 가족의 전형적인 특징으로는 한구의 전통가족과 달리, 분가주의, 부부가족 형태를 띠며, 따라서 부부간 의사가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비율이 높다(염미경, 2012: 131).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염미경(2012)을 참조바람.

점들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앞에서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이 글은 최근 대학의 교양교육과정에서 다문화 관련 강좌 수강이 학생들의 다문화 관련 인식과 태도에 미친 영향을 개략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향후 다문화 관련 강좌의 방향을 모색해보려는 시론적 논의이다. 따라서 이 글은 일반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구성되었고, 여러 대학의 다문화 관련 강좌에 대한 비교·분석이라기보다 한 대학 사례에 대한 분석에 머물렀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좀 더 많은 대학 강좌들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과 비교가 필요하며, 이에 기반해 다문화교육의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는 앞으로의 연구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2012년 04월 22일 접수, 06월 28일 수정, 06월 29일 게재확정.

참고문헌

- 강진구, 2008, 다문화교육이 대학생들의 다문화 인식에 미친 영향 조사, 다문화콘텐츠연구, 12, 53-77.
- 교육과학기술부, 2010,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방안.
- 김성우·최종덕, 2009, 대학교양교육의 위기와 인문학의 미래, 시대와 철학, 20(1), 11-42.
- 김희정, 2007, 한국의 관주도형 다문화주의: 다문화주의 이론과 한국적 적용, 오경석 외,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현실과 쟁점, 한올아카데미.
- 박균열·박진환, 2010, 대학의 다문화이해 강좌 인식 연구, 윤리교육연구, 22, 273-300.
- 부향숙, 2009, 세계사회의 문화내용과 한국 대학 교양교육과정과의 관계 탐색: 사회학적 제도주의 시각으로,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서범석, 2010, 다문화교육정책의 현황과 발전방향 탐색,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 여성연·정인경·양정혜, 2011, 대학교양과정으로서의 다문화교육에 대한 요구, 한국실과교육학회지, 269-286.
- 염미경, 2011, 학교 밖 다문화교육의 현황과 방향 모색: 박물관 다문화교육을 중심으로, 교과교육연구, 5, 65-88.
- 염미경, 2012, 제주도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족관계 양상, 이소희 외, 다문화사회, 이주와

트랜스내셔널리즘, 보고서.

- 이민경, 2008, 한국사회의 다문화교육 방향성 고찰, *교육사회학연구*, 18(2), 83-104.
- 이은화, 2007, 한국 대학의 교양교육과정 편성·운영체제 사례 분석, *아시아교육연구*, 8(2), 91-118.
- 임재윤, 2001, 대학의 교양과정 고찰, *한국교육사학*, 23(2), 357-379.
- 전세경, 2011, 초등교원 양성대학 '다문화교육' 강좌의 구성과 운영실태 및 실과교육과의 관련성 분석, *한국실과교육학회지*, 24(1), 213-239.
- 지승현, 2008, 다문화시대의 외국인을 위한 박물관교육 프로그램 연구, 김종대 외, *박물관교육의 이론과 실제*, 문음사.
- 행정안전부, 2011, 2011년 지방자치단체 외국계주민 현황(보도자료 2011년 6월 24일자).

Banks, J. A., 2008, *An Introduction to Multicultural Education*, 5th ed, Boston: Allyn & Bacon.

The Actual Conditions of ‘Understanding Multiculture’ Lecture and the Attendees’ Consciousness on Multiculture at the University

Mi-Gyeong Yeum*

Abstract This article is a kind of the current view-like argument to discuss multicultural education at the university. In particular, this study investigate the attendees’ multiultural consciousness of understanding multiculture chair at Jeju National University in 2011. This result of this study showed some implication as follows: Firstly, even the research period lasted only one semester, the consciousness and attitude of students on Multiculture were changed to very positive direction. Secondly, there was some differences between men and women. The concern of a female was higher than male. The students’ interest on multiculture was higher than the beginning of the semester through taking the chair of understanding multiculture. Therefore, it is needed to be opened the courses of understanding multiculture at university. And, it needs that diverse programs and courses related to multiculture are opened inside and outside of university, because students’ consciousness and attitude on multicultures differ according to taking the course of students.

Keywords Multiculture, Multicultural Education, ‘Understanding Multiculture’ Lecture, Multicultural Consciousness, Jeju National University

* Jeju National University, Sociology, mgyeum@jejunu.ac.kr